

Jaco Pastorius의 연주 분석

- Jaco Pastorius<Jaco Pastorius>앨범 중 Come On, Come Over를 중심으로 -

신충근,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moses777@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n analysis of Jaco Pastorius's performance

- <Jaco Pastorius>of Jaco pastorius Focused on the song of Come On, Come Over -

Choong-Keun Shin , Tae-Seon Cho*
Chungwoon Graduate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재즈(Jazz)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시작 됐다. 1970년대 유럽에서 생겨난 록(Rock)음악과 재즈가 융합하면서 퓨전(Fusion)재즈가 생겼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베이스 연주자들은 드러머와 함께 백 그라운드 연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Portrait Of Tracy'는 일반적인 저음 위주의 연주 패턴이 아닌 하모닉스 주법을 사용하여 저음과 고음을 같이 사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며 베이스 기타를 단순히 저음 위주의 악기가 아닌 하나의 솔로 악기로 바꾸어 놓았다. 본 연구에서는 Jaco Pastorius의<Jaco Pastorius>앨범 중 'Come On, Come Over'를 통해 어떠한 주법으로 연주했는지 스케일과 리듬을 분석해보고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1. 서론

재즈(Jazz)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시작 됐다. 그 당시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의 흑인 민속 음악과 백인 유럽음악인 클래식 음악이 합쳐지면서 생겨난 음악이 재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뉴올리언스 재즈를 시작으로 미국의 발전과 함께 재즈도 발전 하였다. 특히 그 중에 1970년대 유럽에서 생겨난 록(Rock)음악과 재즈가 융합하면서 퓨전(Fusion)재즈가 생겼다.

1970년대 퓨전 재즈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베이스 연주자들은 드러머와 함께 백 그라운드 연주를 했다. 하지만 Jaco Pastorius는 1976년 자신의 이름을 본 딴 그의 데뷔 앨범인 'Jaco Pastorius'라는 앨범으로 일렉트릭 베이스를 연주함과 동시에 솔로 악기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 이후 핑거핑크 주법과 하모닉스 주법과 같이 실험적인 연주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베이스 기타의 연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 대중음악에서는 곡의 멜로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로 인해 베이스 기타는 대부분 안정적인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순한 연주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그루브 있는 리듬을 연주하고 그것을 넘어 밴드를 리드하고 솔로잉을 하는 연주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Come On, Come Over'라는 곡을 분석하고 밴드 음악에서의 베이스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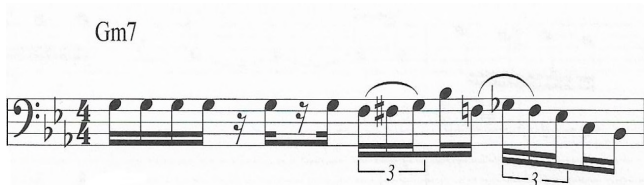
2. 본론

2.1 곡 설명

이 곡은 Jaco Pastorius의 데뷔 앨범의 두 번째 곡으로 Bob Herzog(밥 허족)과 같이 작곡하였다. Herbie Hancock(허비 헨콕), Randy Brecker(랜디 브레커), Michael Brecker(마이클 브레커), David Sanborn(데이빗 샌본), Don Alias(돈 알리아스)등 쟁쟁한 뮤지션들이 세션으로 참여했으며 Sam & Dave(샘 앤 데이브)

이브)가 보컬로 핏처링 하였다. 또한 그의 앨범 중에 유일하게 연주곡이 아닌 가사가 있는 보컬곡으로 그루브한 리듬과 경쾌한 브라스 사운드로 곡을 표현하였으며 연주하는 즐거움을 가사로 표현했다.

2.1.1 Come On, Come Over



[그림 1] 1마디

[그림 1]은 R음(근음), 3도 음, #5도 음, 7도 음, M7도 음, 11도 음이 사용되었다.

1 마디 1 ~ 2 박자는 모든 악기들이 유니즌 섹션으로 시작하며 3 ~ 4 박자는 베이스 기타와 건반만 연주를 함으로써 Jaco의 솔로 베이스 라인을 부각 시켜준다. 그리고 16 분음표와 Triplet을 사용하면서 도입부의 강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1 마디 코드는 Gm7 코드이지만 전체적인 베이스 라인을 봤을 때 이 곡이 Cm Key 이므로 Cm 블루스 스케일을 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 박자 첫 번째 7도(F) - M7도(F#)음 - R음(G)으로 가는 부분에서 M7(F#)음은 F음과 G음의 크로매틱 어프로치로 접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Cm Key의 블루스 스케일을 연주하였으므로 C의 b5도(Gb 또는 F#) 음인 블루노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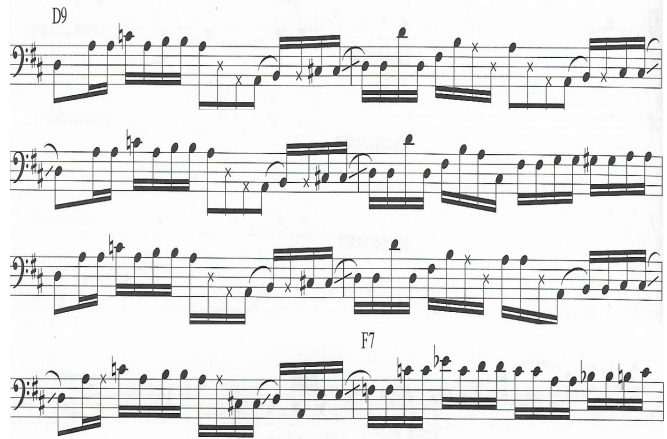
4 박자 1 번째 음과 3 번째 음 또한 마찬가지로 C의 b5도(Gb 또는 F#) 음으로 분석 했다.



[그림 2] 2마디

[그림 2]는 R음(근음), 7도 음, M7도 음이 사용되었다. 1 박자 ~ 3 박자는 브라스와 건반이 함께 리듬 섹션을 맞추

며 R음(G)에서 반음씩 하행진행을 하고 있다. 4 박자에서 나오는 베이스 라인은 악보 상에서는 N.C.(No Chord)로 표기 되어있으나 3 마디 Cm7 코드를 연결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Cm Key의 7도 음에서 반음씩 상행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25-32마디

[그림 3]는 R음(근음), 3도 음, 5도 음, 7도 음, M7도 음, 8도 음(근음), 9도 음, 11도 음, #11도 음, 13도 음이 사용되었다. 총 8 마디 중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4 마디 패턴으로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D9 코드의 Major Diatonic Scale이 쓰였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25 마디, 27 마디, 29 마디, 31 마디 1 박자, 2 박자에서 R음(D) - 5도(A) - 7도(C) - 5도(A) - 13도(B)로 이어지는 16 분음표 연주가 Jaco가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 라인 이라고 할 수 있다.

Jaco는 이 베이스 라인을 평소에 자주 사용하였는데 Come On, Come Over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수의 곡에서 연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3 박자에서 5도(A)를 첫 번째 16 분음표로 연주하고 두 번째 음과 3 번째 음을 뮤트로 연주한 뒤 4 번째 음(A)을 한 옥타브 밑으로 연주하는 이것 또한 Jaco의 특유의 Funk 하고 Percussive 한 베이스 라인 효과를 내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28 마디 1 박자는 R음(D)과 한 옥타브 음을 16 분음표로 다운 비트로 강하게 표현하고 2 박자는 3도(F#) - 13도 또는 4도(B) - 5도(A) - M7도(C#) 순으로 연주하였다.

2 박자에서 두 번째 음에 나오는 13도(4도)는 Jaco가 많이 사용하는 음 중에 하나다. 베이스 악기와 같이 저음에서 연주하는 악기는 코드 톤을 많이 사용하는데 13도(4도)를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느낌의 베이스 라인이 나온다.

3 박자와 4 박자는 3도(F#) - 11도(G) - #11도(G#) - 5도(A)음

순으로 상행진행 하였는데 이는 더블 크로매틱 어프로치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 하였다.

32 마디의 1 박자와 2 박자는 앞에서 설명한 25 마디, 27 마디, 29 마디, 31 마디에서 사용한 Jaco의 베이스 라인이 F7 코드에서 동일한 음정으로 사용되었고, 4 박자 역시 앞에서 설명한 2 마디 4 박자를 분석한 것과 같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3 박자와 4 박자는 그 다음 마디인 33 마디 Cm7 코드로 가기 위한 크로매틱 어프로치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음 마디가 Cm Key로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이스 라인 진행을 표현 했기 때문이다.



[그림 4] 44마디

[그림 4]는 R음(근음), 3도 음, 5도 음, 7도 음, M7도 음, 9도 음, 11도 음, #11도 음 13도 음이 사용되었다.

우선 44 마디의 특징은 1 박자에 R음(D) 다음에 16 분음표로 4현 베이스의 가장 낮은 음역대인 9도(E)를 연주함으로써 마치 베이스 라인이 저음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효과를 내준 것과 1 박자 첫 번째 음 R음(D)을 제외한 1 ~ 4 박자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이 반음 씩 상행진행으로 연주된다는 것이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3도(F#) - 11도(G) - #11도(G#) - 5도(A) - 13도(B) - 7도(C) - M7도(C#)로 *크로매틱 스케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마디부터 Keyboard 솔로가 나오는데 솔로가 나오기 전에 44 마디를 상행진행하며 긴장감을 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조 시켰다.

3. 결론

이 곡은 Jaco의 데뷔 앨범인 <Jaco Pastorius>의 앨범 중 유일하게 보컬이 나오는 곡이다. 일반적으로 보컬이 나오는 곡에서는 드러머와 함께 백 그라운드 연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보통의 대중음악 연주에서 베이스 기타는 대부분 안정적인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곡은 블루스 스케일이나 도미넌트 어프로치, 다이어토닉 스케일 등 이 앨범의 다른 곡들 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라인을 사용하였지만 인트로 도입부부터 베이스 기타 라인이 부각되고 전반적으로 베

이스 기타가 곡의 전체 멜로디 라인을 이끌어 간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베이스 연주와 많은 차이를 두었다. 그는 이렇게 베이스 기타의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실험적이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였다. 그 전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프렛리스 베이스의 연주, 그리고 하모닉스의 새로운 주법과 핑거핑크 스타일의 그루브한 연주 스타일, 또한 밴드를 리드하며 연주하고 솔로악기로써의 역할까지 영향을 끼쳤다. Jaco Pastorius가 사망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연주한 베이스 기타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많은 연주자들에게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가 작곡한 곡과 연주법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Jaco Pastorius의 특징적인 곡을 분석하고 연주법을 분석하며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Jaco Pastorius. Play like Jaco Pastorius. Hal Leonard. 2016.
- [2] Jaco Pastorius. Invitation. Warner Bros. Records. 1983.
- [3] Jaco Pastorius. Play 8 songs with tab and sound-alike audio. Hal Leonard. 2016.
- [4] 장응규. 재즈베이스 교본. 삼호뮤직. 2001.
- [5] 백병동. 화성학. 수문당. 1998.
- [6] <http://jacopastorius.com/life>